

70일 만에 국내선 전 노선 운항 재개

~ 철저한 감염 대책과 운항 양립을 지향 ~

- 전 노선의 국내선 운항은 70일 만에 처음
- 계속해서 공항, 기내에서의 철저한 감염 대책을 실시
- 사회 경제 활동의 재개를 뒷받침하여 지역 경제 재생을 이끔



Peach Aviation 주식회사 (이하:Peach, 대표이사 CEO:모리 다테아키)는 금일 70일 만에 국내선 전 노선인 22개의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Peach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이 중 13개 노선을 일시적으로 운휴하고 있었으나 6월 1일에는 오키나와(나하)-후쿠오카 선을 재개하여 금일 12개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금일 간사이 공항에서 운항을 재개한 오사카(간사이)발, 구시로행을 배운 CEO 모리는 의료 종사자, 취항처의 지자체와 관계자, 고객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비행기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항이나 기내의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며 공공교통기관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재개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재생을 이끌며 취항처의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협력을 받아 안전 취항을 가장 큰 목표로 사업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Peach는 이제부터 이동을 전제로 한 감염대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마스크 착용과 몸이 안좋은 경우 탑승을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each에서는 7월 22일에 국내선 전편의 운항을 재개*1함과 동시에, 성수기인 8월 1일부터는 일부 노선의 증편을 실시하여 철저한 감염대책과 항공기 운항의 양립을 이루어나가며 지역경제의 재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 1 자재 조달을 위해 MM132, MM564은 7월 23일부터 운항합니다.

감염 대책에 대한 특설 페이지 : https://www.flypeach.com/information/jp/infection_control/

운항 재개 상황에 대한 특설 페이지 :

https://www.flypeach.com/information/jp/resume_flights/